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강효주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soriel0828@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SUNY at Albany / 행정학	(국가) 미국
기 간	2015. 1. 7. ~ 2015. 12. 25	**[귀국일: 2015년12월2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6년 1 월 23 일

신 청 인 : 강효주 (인)

87 HOEGIRO DONGDAEMUNGU, SEOUL 130-868, KOREA
TEL: 82-2-3299-1021 FAX: 82-2-3299-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1.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봄학기 시작 2주 전(1월 초)에 올바니에 도착하니, 눈도 많이 쌓여 있었고 추웠다. 도착부터 시작하는 겨울은 4월 정도 되어서야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추울 때에는 1~2분만 바깥에 있어도 칼바람에 얼굴이 베이는 것 같았다. 다만 한국보다 실내난방을 잘 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만 있으면 추위를 느끼기 힘들고 또 차로 주로 이동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다. Albany International Airport로 담당 한국 교수님과 조교가 마중 나와주셔서 하루는 호텔에 묵고 그 다음날에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갔다. 도착하면 생활기반을 마련하느라 바쁘지만, 학기 시작 2주 전에 도착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다.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는 holiday season이라 많은 상점이 쉬기 때문에 막상 와도 마음먹은 대로 정착기반을 마련하기가 힘든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올바니는 오래된 도시이고 뉴욕주의 주도(主都)로 뉴욕주 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뉴욕시티로부터는 차로 약 2시간 거리이며, 올바니 주변의 스케넥터디, 트로이가 같은 생활권에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여름에는 덥지만 한국보다 습도가 낮아서 후덥지근 하지는 않다. 그러나 햇볕은 매우 강하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SUNY Albany 대학 MPA 수업은 미국 공무원 양성을 위한 training program 성격이 강해서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도 있다. 영어를 배운다는 넓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MS Excel 및 MS Access 기초, Presentation skill 등을 석사과정에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더군다나 추가 program fee $10,000을 감안한다면 더욱 수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학문적인 깊이가 적고 숙제가 많았는데, 많아서 바쁜만큼 지식적인 욕구가 채우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드는 수업도 있었다.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필수과목임에도 PhD학생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실망스러웠다. 아무래도 학문적 깊이나 경험 및 교수법 등의 여러측면에서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본다. 그리고 NASPAA에서 선정한 행정분야에서 요구되는 5개 소양에 대해서 매 학기마다 core 과목에서 자기자신을 점검하고 개선내용 등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석사과정에서 이런 과제 자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KDI 수업이 내용 및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본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KDI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 선택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은 1개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필수코스로 반드시 들어야 한다. 수강신청은 지도교수님으로부터 AVN(고유번호)을 받은 후 시작할 수 있다. 봄학기에는 14학점(4학점 3과목, 2학점 1과목), 가을학기에는 11학점(4학점 2과목, 2학점 1과목, 1학점 1과목)을 들었다. 봄학기부터 시작하는 경우 PAD 508 과목(2학점)을 PAD 507(2학점)보다 먼저 듣게 되어 다소 당황스럽지만 듣는데 무리는 없다.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학기 중에는 수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따라가기에 바쁜 편이다. 그리고 필수과목의 경우 group work가 거의 대부분 있어서 미국 학생들과 같이 일해본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시간 소모가 많고 효율이 낮은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교수님보다 학생들과의 그룹 토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운 편이다.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까지 왔으니 미국 사람들과 많이 교류할 것을 추천한다. 그룹 work에서도 수동적인 형태로 듣거나 의견을 따라가기 보다 먼저 의견도 내고 그룹을 이끌어가는 것을 해 보길 추천한다. 많은 미국 교수님이 한국학생들이 똑똑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질문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를 버리고 교수님,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볼 것을 권한다. 본인의 경우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지만, 학업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미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고 또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다. 또 친절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쌓이면 paper 제출 전에 문법 등을 미국 사람들에게 feedback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경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자그마한 선물(전통문양의 책갈피, 장식품, 필통, 파우치, 장갑 등등)을 준비해 올 것을 권한다. 본인의 경우, 귀국하기 전에 도움을 줬던 친구 및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는데, 매우 고마워했고 개인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미국 사람들과의 relationship, 그리고 과제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Albany 외곽의 Guilderland에 소재하는 Heritage Village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1년간 살아본 경험으로서는 만족스러웠다. 아파트는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maintenance를 잘해줘서 좋았다. 거주하는 동안 주차장 아스팔트도 새로 깔고 아파트 복도 페인트칠, 카펫 청소를 하였다. 건물이 Basement, 1, 2층으로 되어 있으며 한 층에 3~4호수가 있다. 지하에 쓰레기 버리는 곳과 공동세탁기(1대) 및 빨래 건조기(2대), 창고가 있다.

미국에서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지만 맛있는 미국 음식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주로 너무 달거나 짜서 입맛에 잘 맞지 않고 실제로 미국에 비만 및 성인병이 많은 이유가 이런 데서 연유하는 것 같다. 나의 경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다. Albany 내에 중식 및 일식당을 많고, 한국식당도 두어군데 있다. 잘 하는 한국식당도 있는데 물론 가격은 한국보다 비싸다. Kim's Asian market라고 하는 조그만 한인마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뉴저지에 있는 대형 한인마트에서 몇 개월치 식재료를 한꺼번에 저렴하게 사오는 방법이 더 좋다고 본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가을학기가 끝나기 전에 Commencement를 하게 되는데(12월 초), 본인은 태극기를 들고 식 초반에 입장하는 flag bearer를 맡게 되었다. Flag bearer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 & Services (ISSS)에서 먼저 연락을 줘서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연락 메일을 받게 되는 기준은 그 시점까지의 GPA이다. Flag bearer를 하게 되면 Commencement pamphlet의 flag bearer 명단에 이름이 따로 기재되고 식에서는 가장 앞 줄에 앉고 한 사람씩 단상에 올라갈 때도 석사 졸업생 중 가장 먼저 단상에 올라가 수료증서를 받게 된다. Commencement 전에 한 번의 리허설을 하게 되고 각 단과대학별 기수들이 앞단에서 행진하고 그 다음 각 나라의 깃발(약 20여개국)을 든 기수들이 행진한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매우 뿌듯하고 기념이 되는 경험이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길지는 않지만 1년간 미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미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은 경험을 정말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 된 것 같다. 미국의 행정체계 및 사람들의 사고방식, 태도 등에 대해 이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순간순간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아쉬움 없이 학업면에서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성실히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다고 본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발급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대행사에 기본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고 원하는 인터뷰 날짜를 이야기하면 예약을 해 준다. 그리고 대행사에 알려주는 대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많은 부분을 처리해 줘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경우, 대사관에서 인터뷰 전 서류 검토단계에서, 대사관 직원이 내가 가려는 학교의 코드가 잘못 적혀져 있다고 고쳐주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여러 사례를 들어서 긴장하기도 하였는데, 인터뷰 할 때는 한국 공무원 신분으로 유학가는 것을 이야기하면 쉽게 통과하는 것 같다. 공무원이라고 하고 sponsorship에 대한 서류 및 재직증명서 등을 보여주니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SUNY at Albany의 MPA program은 미국 신입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program 성격이 강해서 한국에서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적 만족감을 얻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Albany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학업을 해 보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경험 및 자산이 될 것이다.